

# 향토문화제 '붓물' 불교문화행사 포교 한류 지역주민·관람객 '볼거리'

### 화순 운주축제·원주 치악문화제·공주 백제문화제 등

주민에게 볼거리 제공하고 포교도 하자. 10월을 맞아 지자체마다 향토문화제가 잇따르고 있어 향토문화제에서의 불교관련 행사는 포교의 장이 되고 있다.

향토문화제에서 포교가 참여하는 부문은 영산재, 승무, 탑돌이, 유등제, 제등행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올해는 특히 석불제작 시연회, 집토부처만들기, 불교유물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지역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 화순군은 30일부터 11월3일까지 제2회 화순운주축제를 개최한다. '천불천탑의 신비, 화순으로 오세요'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기간동안 불상제작 퍼포먼스, 석불제작시연, 집토부처만들기, 승무, 청자불상전시 등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화순군측은 "지역 특색인 만큼 지역특성을 충분히 살려야 한다"며 "군내 천불천탑 운주사가 있어 이번 축제에 불교소재를 담은

행사를 마련하게됐다"고 말했다.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원주 치악문화예술제에서 처음으로 '공동안전 방범을 위한 영산대법회'가 선보여 예상외로 많은 시민들이 참석, 큰 호응을 보였다.

공주 백제문화제는 축제기간동안 제등행렬 금강변 관동선 피우기 백제불교영산대제를, 인천 부

평 늘푸른문화제는 불교유물전시회를, 충주 우륵문화제는 탑돌이 영산재 등 불교행사가 다채롭게 열렸다.

하지만 이들 불교행사가 대부분 영산재, 제등행렬, 탑돌이 등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교가 전통종교이고 각종 문화제들을 보유하고 있

는 만큼 프로그램개발에 노력한다면 지역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포교도 할 수 있는 실속 있는 행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강원 철원을 비롯 몇몇 지자체에서는 다종교인들이 축제기간동안 환경정화활동, 행사안 내 뿐만 아니라 선교까지 펼치고 있어 교계의 적극적인 행사마련이 더욱 절실한 상태다.

(김종근 기자)

## "108배로 청소년 인성교육"

### 불교교육연 교학발표회 집중력향상 기여

108배와 입정을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 방안이 제시돼 주목을 끌고있다.

광동여고 이화숙 교사는 10일 광동여고 자비원에서 열린 불교교육연합회(총재 송석구) 주최 제 27회 교학연구발표회에서 "103배와 입정은 청소년들에게 겸손의 미덕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종교성을 배양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광동여고 학생 1천2백여명을 설문조사 결과 실제로 108배 및 입정의 실생활 도움정도를 묻는 질문에 1학년은 15.4%만이 도움이 된다고 말한 반면 2학년은 36.1%, 3학년 44.7%로 고학년에 올라갈수록 생활화하는 수치가 높았다. 그 이유는 80%에 달하는 학생들이 마음이 차분해져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데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기림사 대적광전(보물 833호) 해체복원불사가 16일 회향했다.

## 기림사 대적광전 새 단장

### 16일 낙성...사부대중 1500명 참석

조계종 제11교구 함양산 기림사(경주시 양북면·주지 법일) 대적광전 해체복원 낙성식 및 석가모니부처님 불발 점안식이 16일 사부대중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96년 12월 6억7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착공, 10개월만에 완공을 보게된 대적광전(보물 833호)은 정면5칸 총 61경 규모로 배흘림원주 5량가에 맞배지붕 형식을 하고 있다. 내부에는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노

사나불과 석가모니불을 봉안하고 있으며 노사나불은 지난 3월 복장유물을 도난당한바 있다. 기림사는 이번 불사에 별도로 1억5천여만원을 들여 대적광전과 박물관 등 모든 법당에 CCTV와 방범 등을 설치하는 등 성보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주지 법일스님은 "조선 영조31년(1755)에 6번째 중창된후 2백42년만에 새롭게 대적광전을 단장하게돼 감개가 무량하다"고 말했다.

(경주=이윤호 기자)

## 양평에 15만평 공원묘원 조성

### 보현원서 추진...대웅전·명부전·묘역등 99년 완공

경기도 양평 15만평에 불자들을 위한 현대시설의 공원묘원이 조성된다. 대한불교 보현원(이사장 도각스님)은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심산리 15만평에 명부전, 대웅전, 묘역 등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것.(관련기사 3면) 이에 맞춰 보현원은 10일 서울 중

로구 견지동 서흥빌딩(조계사 맞은편) 2층에 사무실 개원식을 가졌다. 이자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인국, 前총무원장 혜초, 관음종 총무원장 홍과, 원음종 종정 일공,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스님 등 교계지도자들이 참석했다.

99년 완공예정인 양평공원은

## 발산리 석등·석탑이전

### 군산-완주 마찰 심화

군산 발산리 석등(보물234호)과 5층석탑의 이전 문제가 제기돼 지역자치단체간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전북 황토현문화연구소(소장 신정일)에 따르면 우리문화재 제자리찾기 운동 차원에서 일제에 의해 옮겨진 석등과 석탑을 본래 자리인 완주군 구산면 삼기리 본림사지로 옮겨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군산시민들은 이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문화재가 적고, 이 문화재가 일제시대 발산리에 옮겨진 후 60여년동안 관리돼 왔으며 현재는 지역주민들이 보존위원회까지 구성해 관리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전 불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문화재관리국 관계자는 "현재 불림사는 폐허가 된 상태로 석탑과 석등의 본래 위치 파악이 어려워 이전이 된다 해도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당장 이전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해 대해 군산시민들은 이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문화재가 적고, 이 문화재가 일제시대 발산리에 옮겨진 후 60여년동안 관리돼 왔으며 현재는 지역주민들이 보존위원회까지 구성해 관리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전 불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문화재관리국 관계자는 "현재 불림사는 폐허가 된 상태로 석탑과 석등의 본래 위치 파악이 어려워 이전이 된다 해도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당장 이전은 어렵다"고 말했다.

정수스님 14일 입적

학병당 정수 대장백이 14일 오전 6시20분 주석해은 동화사 서별당에서 세수 89세 법랍 80세로 입적했다.

스님은 9세에 해인사로 동진출가해 21세에 금강산 유점사에서 첫 감의를 들어 시작으로 철원사 해인사 은해사 동화사 강사로 후학들을 양성했다.

## 라사판 100권 티벳대장경 반입

### 동국대 도서관 교학·티벳어 연구 중요자료

후기대승불교 관련 연구에 가장 많이 포함하고 라사·델게관 티벳대장경이 최근 국내에 반입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동국대 도서관이 이번에 입수한 티벳대장경은 라사판(經部) 1백권과 델게관(論部) 2백13권. 동국대는 이미 달라이 라마가 60년에 기증한 것을 비롯 여러 티벳대장경을 입수, 보존해 오고 있었으나 책자 형태로 된 영인본

으로 글자가 너무 작아 연구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입수한 대장경은 티벳에서 만들어진 것과 형태가 똑같아 글자를 쉽게 판독할 수 있어 교학 및 티벳어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계에서 북녘동포들기운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는 두 단체가 모두 동포들의 겨울나기를 위해 '겨울옷 보내기운동'을 시작한다는 소식은 추위를 이기게 하는 두툼한 겨울코트처럼 따뜻함을 전해주고 있다.

특히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인 북녘어린이들이 부실한 몸으로 추운 겨울을 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무겁기만 하던 마음이 다소나마 위리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운동이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중소의류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는 겨울용 니트 2천여벌 기탁하기도 했고, '어떤 옷을 보내야 하는지', '오래된 옷인데 관할은?' 등을 문의하는 불자들의 관심은 의외

로 크지만 옷을 보내기까지의 물류비용이 적지않게 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운송비가 만만치 않다. 전국에서 보내오는 옷을 쌓아 둘 장소도 없고, 서울에서 부산항까지의 운송도 차량대여 외에는 방법이 없다. 대략적인 추산에 따르면 보관, 포장, 운송까지 총 3백여만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한 단체는 막대한 물류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성금을 모아 중국에서 옷을 구

입하는 방향으로 '겨울옷 보내기운동'을 전환하려 하고 있다.

물론 북녘동포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만 있다면 어떤 방식이든 큰 문제가 될 수 없겠지만 깨끗하게 손질한 우리의 옷을 북녘으로 보내는 일이 갖는 그 상징적 의미를 생각할 때 중국에서 옷을 구입한다는 것은 왠지 우리의 도리를 빼앗기는 것 같아 섭섭하기만 하다.

'겨울옷 보내기운동'의 원만한 회향을 위해서는 옷장 안의 묵은 옷을 꺼내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옷을 깨끗이 손질하고 포장하여 북으로 떠나는 배에 실기까지 관심을 갖아야 한다. 이 운동은 바자회나 재화물시장에 물건을 내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산MBC 불교회 발기

부산MBC불교연구회는 지난 9일 창립발기인대회를 갖고 회장에 주홍식 심의국장 부회장에 안병욱·박정용씨, 총무에 김중환씨를 선출했다.

회회는 고승초청법회 성지순례 등을 주요사업으로 벌이게 된다.

제비원석불당 식당허가 물의

안동시가 제비원 석불(보물 115호) 주변에 허가한 식당은 적법하다고 밝혀 교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안동시는 9월29일 조계종 총무원이 보낸 '제비원 석불 주변 식당건축철 회유청간'에 대한 답신에서 '국도사이에 시공돼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건축시공허가를 철저히 수 없다"고 8일 밝혔다.

### 동지 법회 설법자료 및 법보시책

## 동지와 무인년 이야기

동지 법어, 팔죽의 유래, 팔죽과 관련된 풍습, 동지와 불교, 동지에 얽힌 불교 설화, 호랑이 해에 생각하는 호랑이 이야기 등을 신도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동지 법회 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록·내·용

제1부 동지맛이 기원법회  
동지 법어/동지 맛이 발원문

제2부 우리의 민속 명절, 동지  
팔죽의 유래/팔죽과 관련된 풍습/동지와 농경(農占)/동지의 시절 음식 불교에서 본 동지의 유래/새롭게 보는 동지/선덕여왕과 지귀/팔죽과 나한님

제3부 민속과 불교  
문화와 민속 문화/민속 불교/삿빤을 막아주는 색/신성한 색

제4부 아세(亞歲-동지)를 맞아 생각하는 무인년 사해  
10간 12지로 나누어 본 무상한 세월 이야기  
호랑이 이야기/불교 설화에 나타난 호랑이 이야기

-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 ◆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맨 뒷장에 법보시지 및 법회안내 등을 넣어드립니다.
- ◆ 크기/4×6배판. 표지포함 52페이지 \* 법보시 특가/1권당 1,500원

성도절 이야기  
신국판 64페이지. 정가 1,500원  
성도절 법회 법보시로 좋습니다.

감로출판사  
서울·종로구 수송동 13번지  
☎723-4306~7 FAX: 738-8682 (야간) 011-265-0923

## 불기 2542(무인년) 달력 보급 안내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불교위상을 높이는 말없는 포교사업입니다.

해마다 이러한 사업으로 품위있고 격조 높은 달력을 만들어 수많은 사찰과 불자님들에게 기쁨을 드려왔던 감로기획에서는 불기 2542년도 달력 '산사의 향기(大·小)-사진 안장현', '동자승(大·小)', '나한도(小)'를 주문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단채로 주문하실 경우에는 사찰명, 그리고 법회안내 및 주소, 전화번호를 인쇄하여 드립니다.

- 크기 : 小(26×26.5cm) 大(30×31cm)
- 매수 : 표지 포함 13매
- 특수고급제본
- \* 견본이 필요하신 사찰은 전화주시면 보내드립니다.

감로기획  
서울·종로구 수송동 13번지  
☎723-4306~7 FAX: 738-8682 (야간) 011-265-0923